5월은 익산 곳곳이 축제장

익산시, 어린이날 한마당 · 가족 행복캠프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행사 마련

익산시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풍성해진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어린이날 행사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캠프, 문화 체험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제103회 어린이날인 오는 5월 5일, 익산 시내 곳곳에서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행사들이 어린이와 가족 단위 참가자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삼동청소년회가 주관하는 '제39회 솜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원광대 소운동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축하공연과 아동 헌장낭독을 시작, 전통 민속놀이, 직업 체험, 디지털 체험, 반려동물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열매나눔공동체가 주관하는 '제30회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된다. 모범어린이 시상식과 춤 공연이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어 에어바운스와 화재&미로탈출, 가족공예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비롯해 마술쇼, 어린이 장구 공연 등 볼거리도 준비돼 있다.

시는 또 가정의달을 맞아 다자녀 가정을 위한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가족 행복캠프'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일대에서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30일 교내 고춘곤홀에서 '세계 ECONERGY 선도대학'을 주제로 2025년 글로컬대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전 공유 · 글로컬대학 추진 전략

국립군산대, '세계 ECONERGY 선도대학' 글로컬대학 설명회 개최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30일 교내 고춘곤홀에서 '세계 ECONERGY 선도대학'을 주제로 2025년 글로컬대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립군산대가 추진 중인 'ECONERGY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세계 최초 에코너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밀착형 혁신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교직원 및 학생들과 공유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와 주요 보직자를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들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ECONERGY 글로벌 이니셔티브'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 내용 △ECONERGY 캠퍼스를 통한 글로벌 전략 △신재생에너지 및 해양바이오 특화 혁신 전략 △2025년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서 등 국립군산대가 지향하는 '세계 ECONERGY 선도대학' 비전과 실천 방안에 대해 중점 소개했다.

국립군산대학교 엄기욱 총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국립군산대는 신재생에너지와 해양바이오를 융합한 'ECONERGY(에코너지)'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선도하는 글로컬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이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군산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교내 구성원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ECONERGY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수준의 지역혁신 대학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1인 가구와 여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군산시, 안심 홈세트 지원 ·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군산시가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사업'과 '여성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운영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고립감과 범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2025년 총 1,737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130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원 장비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 문 열림 센서 △송장 지우개 5종이며, 가구당 최대 3종까지 선택 지원된다.

여성·남성 1인 가구·자녀가 18세 미만인 한부모 모자가정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 및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또한, 시는 여성과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갑작스러운 생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10대를 공공시설과 청소년시설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 설치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시립도서관 △설립도서관 △늘푸른도서관 △금강도서관 △근대역사박물관 △예술의전당 △수송동 및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총 10개소로 여성과 청소년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는 여성 일상 속의 불편함을 세심히 반영한 복지정책으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군이 이리양을 만났을 때' … 익산시, 민간기록 공모전

익산시가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록을 찾는다.

익산시는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5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익산군이 이리양을 만났을 때'로, 통합 시기인 1995년 이전 익산군과 이리시 주민들의 삶·문화·사회상을 보여주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한다.

공모는 전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대상은 익산군 또는 이리시 자료임을 알 수 있는 △문서류 △시청각류 △박물류 등의 기록물이다. 특히 익산군이나 이리시가 표기된 1995년 자료는 특별히 우대된다.

아울러 공통주제로 △마을이나 동네의 역사 △익산과 관련된 정책·행사 기록 △일상·풍속·문화생활 등 익산과 관련한 전승 가치를 지닌 기록물이면 모두 출품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지원과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익산시민역사기록관(평동로1길 28-4)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록물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8~9월 중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3명(각 50만 원) △우수상 7명(각 30만 원) △장려상 34명(각 10만 원) 등 총 45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농기센터, 벼 육묘 알선창구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는 본격 영농철을 앞둔 5월부터 이앙 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까지, 2개월간 육묘 알선창구를 운영한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육묘 알선창구'는 육묘가 남는 농가와 부족한 농가 현장을 연결해 육묘 때문에 고민하는 농가 현장의 고민을 덜어주는 한편, 성공 영농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산시는 전체 농지에서 벼농사 비율이 높은 만큼 육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병해충 발생 문제로 인해 육묘 난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육묘 알선창구를 통해 작년도 7천 상자 이상의 육묘를 알선하여 40ha가량의 면적에 차질 없이 육묘를 마칠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육묘가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적기 이앙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육묘가 과다할 경우 폐기처분해야 하지만, 육묘 알선창구를 운영해 농가 경영비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역의 농업인을 서로 연결해줌으로써 육묘뿐 아니라 영농기술까지 도움을 받는 장점도 있다.

박용우 기술보급과장은 "항상 초보자의 마음으로 주변 환경에 맞게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건강한 모를 기를 수 있다.

육묘가 남거나 모자란 농가는 언제든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육묘 알선창구 적극 활용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센터는 지역별 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등록된 모내기 후 남는 모가 있는 농가나, 육묘가 모자라는 농가를 살펴 관내 전 지역의 육묘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1년 전 설렘 · 추억 '느린 편지' 200여통 발송

익산시가 여행객들에게 1년 전의 설렘과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편지를 발송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 '천년사랑열차 시즌2' 참가자들이 작성한 '느리게 가는 편지' 200여 통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느리게 가는 편지'는 관광열차를 타고 익산을 방문한 여행객들이 여행의 감성과 추억을 엽서에 담아 작성하면, 1년 뒤 다시 받아보는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번 편지 발송은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5 익산서동축제'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처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이어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올해도 서동축제와 연계한 '천년사랑열차'를 5월 3일 운영하며, '무왕행차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지역 주요 명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군산시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과 질병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64세(1961~2005년생)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검진 항목은 △신체 계측 △시력 및 청력 측정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 등으로 되어 있다

검진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으로 구분되며, 각각 2년 주기로 시행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특히 검진 항목에 △인지 기능장애 △골밀도 검사 △낙상 검사 등을 추가하여 노년기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검진 기관에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군산=이재춘기자